

평생학습시대와 중등교육의 발전과제*

신 군 자
(성신여자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새로운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중등교육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중등교육의 대안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중등교육개혁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중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몇 가지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제도는 시대상황의 복잡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더 원적이고 복합적인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학점은행제나 원격교육을 중등교육단계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체제로서의 중등교육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범사회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학벌위주의 사회충원을 철폐해야 한다.

I. 평생학습시대와 교육

최근 선진국들의 교육개혁 동향을 보면, 기존의 학교교육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체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기적 전환은 인류사회의 일차적 관심이 산업사회적 특징에서 정보사회적 특징으로, 가치관과 지식관이 근대사회적 기준에서 초근대사회적 기준으로, 삶의 환경에 대한 관념이 지역중심의 공간개념에서 정보중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 이 논문은 200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전환하고 있다(이돈희, 1998: 25).

특히 평생교육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교육행위가 정규 학교에 의해서 독점되던 시기는 이미 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행해야 할 실질적인 활동들을 중심으로 21세기를 대비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제안하였다(교육부, 1999: 8).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학점은행제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점은행제도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편의에 따라 학습하고 그 학습결과에 대해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나이나 때에 구애됨이 없이, 반드시 학교에 재학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궁극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학점은행제도이다. 평생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또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제도이다(강태중, 1999: 24-25).

기존의 학교교육은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교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학교교육은 학습자 중심이고 ‘학습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을 학교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한정하지 않으며, 지식을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것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21세기 사회에 요구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의 공교육제도는 이미 해체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교육의 제도적 구조나 정책개발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 집결되어 있고 경직성을 지닌 관료체제가 교육행정을 통하여 현장의 교육활동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21세기 사회에 적응력을 잃어버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현재 공교육체제의 역기능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적 노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교육제도 그 자체가 심각한 증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려는 대안학교운동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런 학교운동의 시작은 기존의 학교가 관료주의가 보여주는 폐단과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가장 낙후된 제도라는 강한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들의 비판이나 지적은 공립학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나 새로운 학교제도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혹은 실험적인 형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대안적 교육 유형들로는 자유학교, 지역사회학교, 벽 없는 학교, 재택교육운동 등이 있다.

한편 학교교육비판론은 일리치(I. Illich)와 라이머(E. Reimer)의 혁신적인 입장의 학교교

육폐지론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라이머는 학교를 수용된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군대나 감옥, 정신병원에 비유하면서 학교가 지배적인 계급구조의 유지와 체제 및 특권의 영속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일리치도 현대 산업사회가 지닌 모순, 즉 비인간화 현상과 소외, 빈부격차 문제 등의 원천이 학교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학교제도로 야기된 현대사회의 사회적 신화와 가치의 제도화, 학교화된 의식 문제의 해결은 탈학교를 통한 교육개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주의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는 학습사회(learning society), 진정한 학습세계(learning globe)가 되어야 할 것이다. 드러커(P. Drucker)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런 도전을 명백히 보여준다(Drucker, 1992: 10).

…… 모든 기업은 학습기관이 되어야 하고 교수기관이 되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직무에 계속적인 학습과 계속적 교수를 고려하는 조직(과 사회)은 21세기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기업과 산업, 정부와 기타 사회기관 그리고 교육체계 등 여러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당한 노력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학습사회의 발달은 교육체계 단독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모든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된다.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평생교육’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뜻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른바 평생학습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교육개혁은 평생학습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교육의 결과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종래의 교육에 대해 가져오던 자신감에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개혁 운동은 이러한 국가 경제와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예를 들어 영국이 국가 교육과정의 설정을 서두른 데에는 영국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취정도가 격렬한 국제 경쟁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데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1960년대 과학기술의 우위를 소련에게 빼앗겼다가 연방 수준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되찾은 바 있는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 독일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상실해가는 위기의 원인을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노동력의 질에 두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교육개혁 특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에서 찾아 왔

던 것이다.

특히 우리의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중등학교교육과정 운영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국민들의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적 생활경험이 빈약한 사람, 생각하는 과정보다 결과로서의 정답만을 중시하는 사람을 양산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교육에 의해서는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개성있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성을 계발시키고 독창적인 유용한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에 자퇴를 한 청소년들에 의하면, 현행 학교는 대학이라는 거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반드시 잘 치러내야 하는 하나의 통과리례에 지나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잘 순응하고 복종하면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중도탈락하거나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겹다는 것이다(한준상, 1999: 28).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의 중등교육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교육개혁의 수준에서 정책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학교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기하는 시책이 나와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중등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요청되는 중등교육의 발전 과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평생학습시대와 중등교육의 전망

중등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선택하기 위하여 21세기 사회의 전망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5·31 교육개혁안은 문명사적 시각에서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신교육체제의 비전과 특징, 목표'를 규정한 바 있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암기위주의 입시준비교육을 조장시키는 교육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성교육을 사라지게 하는 대학입시를 겨냥한 과열과외의 현상으로 학교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안의 개선안대로 집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현재 일선 학교의 분위기로는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의 과외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학교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들은 종래의 학교에서 지향할 수 없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오래 전 일리치(Illich)에 의하여 주창되었으며,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탈학교운동 역시 종래 공교육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中等교육의 현황

1) 中等교육의 목적 및 역할

초中等 교육법은 中等학교교육목적으로서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中等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조). 또한 ‘고등학교는 中等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中等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이러한 목적에 따라 中等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中等교육을 그 전기에 해당하는 中等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6-3-3-4의 구조를 학제의 기간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제운영에서 中等교육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입시제도는 하급단계의 교육과 상급단계의 교육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입학자 선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中等교육은 초등학교를 받은 학생을 교육한다. 한편 中等교육을 받은 학생은 선발되어 고등학교를 받거나, 아니면 마치고 교육체제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中等교육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서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中等교육의 형식 속에는 그 사회의 가치이념과 사회구조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이상과 원칙이 내재하게 된다. 세계 주요 국가의 학제를 비교해 보면 그 제도의 운영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단계의 교육이 바로 中等교육이다. 교육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곳이 바로 中等교육 단계이며, 항상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도 中等교육이었다. 학제의 개혁이나 논쟁은 바로 中等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왔다(이종재, 1997: 231).

교육개혁은 반드시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을 수반하며, 어느 의미에서 후자의 개혁은 전자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中等학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中等교육의 목표 및 내용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1962년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9년제 통일기초학교(Grundskola)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기초학교는 종전의 초등학교와 中等학교를 통합·단일화하여 조직된 기

관이다. 당시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는 초등학교와 전기중등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중등학교 수준에서도 3분기형적 학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9년제 통일의무기초 학교의 확립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교육제도 개혁의 모형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층 더 획기적인 것은 1971년의 후기중등학교 개혁이었다. 이 개혁에 의해서 스웨덴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단일의 '통합고등학교(Gymnasieskola)'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사회적 평가를 달리하는 세 유형의 학교, 즉 종합고등학교(Gymnasiet), 전과학교(Fackskola), 직업학교(Yrkeskola)를 통합한 유일한 후기중등학교이며, 9년제 기초학교를 졸업한 소년·소녀들이 입학에 희망한다면, 무조건 입학할 허가를 하는 공립의 교육시설이다. 통합고교는 의무교육학교는 아니지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급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이 바람직하게 실현되고 있는 민주적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의 평등주의에 기초한 고등교육개혁은 필연적으로 개방형적 입학제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입학시험은 없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25세 이상이고, 4년 이상의 노동경험(직장경험)이 있고, 소정의 진학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학입학이 허가된다.

영국의 대학입시 제도를 살펴보면 개방대학에는 모든 성인들이 21세가 넘으면 누구나 학력의 차별없이 입학할 수 있고 따라서 정규대학의 입학자격인 '일반교육수료증(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을 제시하지 않아도 입학이 허가된다.

2) 중등교육에서의 실업계 교육

고등학교교육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기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사회진출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크게 구분되기 때문에, 중학교교육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펴서 계열분화에 따른 선택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중학교교육에서는 교과교육의 영역에서 분화, 심화되는 교과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과 함께, 자기의 적성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도가 학교의 지도와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고등학교교육은 이러한 중학교교육의 기초 위에서 그 교육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이종재, 1997: 230).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과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그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내용에서도 평생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기초 직업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실업계 고등학교교육은 중국교육의 성격

이 강하여,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기가 매우 힘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매년 감소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입학하는 학생들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져 실업계 고등학교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9 개혁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와 직장을 오가며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16-17)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고등직업교육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기능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을 개선한다…….

주요 우선 전형대상 : 실업고교 졸업자, 해당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이수자, 일정기간 이상의 산업체 근무자, 국가기술자격증(평가·인정된 민간기술자격증 포함) 소지자, 산업체 위탁교육생 등…….

이상의 교육개혁안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평생교육의 체제하에서 직업 입문단계의 기초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보통교육과 기초 전문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필요에 따라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직업고등교육을 이수한다든지 또는 곧 바로 진학하여 보다 심화된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중등교육에서의 특수목적계 교육

특수목적계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교육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안에서는 이러한 특수목적계 고등학교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예·체능계 중·고등학교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43)

예·체능 교육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 교육과정에는 전문교과 영역을 두고 다양한 예·체능계 심화 선택교과목을 개설하되 과목선택 운영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특수목적계 고등학교교육은 '대학입시위주 교육의 성격'이 강하여 영재의 조기 발굴육성이라는 특수목적계 학교의 설립목적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현행 내신제도 아래서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으로 인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비교내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학 외국어 분야 영재의 조기 발굴육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교가 이처럼 대입 전형자료 산출방식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개혁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수목적계 학교에 대하여 설립 목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특수목적계 학교(예·체능 중학교 및 특수목적계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는 설립목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교육과정을 변칙 운영할 경우(예: 대학입시위주 교육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62).

종합적으로 특수 목적계 고등학교는 체육, 예술, 과학, 외국어 등에 관한 소질과 재능을 조기에 발굴,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여건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이다. 이른바 입시 위주 교육으로 불리우는 소모적, 낭비적 교육 현실로부터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에 활로를 터주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한 경쟁이 그나마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은 그것마저 포기해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비록 학교에 남아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 학교교육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2. 중등교육의 대안과 전망

최근의 설문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이유 중 '학교가 맞지 않는다'는 응답률(23.6%)이 높았다(조아미, 2001: 12).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27.2%)'이기 때문이라든가 혹은 '졸업장을 획득하여 상급학교로 진학(23.4%)'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율도 높았다(이종태 외, 2000: 75). 또한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긍정 48%, 부정 52%)'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윤철경 외, 1999: 73). 이것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학교가 종전 방식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종래 관료주의적 교육체제를 전환하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변화는 교과지식 중심의 학교교육 패러다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의 존재방식을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학교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학교개념을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학교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탈학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안교육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요약된다(이종태 외, 2000: 96-97).

첫째, 대안교육은 대체로 근대성 또는 근대교육의 기본 가정들, 예컨대 과학의 합리성이나 보편주의, 물질적 풍요 중심의 가치관에 비판적이다.

둘째, 대안교육은 아동 또는 학습자를 보는 관점이 전통적인 근대교육과 다르다. 근대교육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아동은 불안정한 존재이며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도 아니다. 따라서 교사중심의 교육이 자연스러우며, 성인의 관점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안교육에서는 대체로 아동(학습자)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며 자율적인 학습을 중시한다.

셋째, 대안교육은 공통적으로 생태주의를 지향한다. 생태주의란 생태계의 온전한 유지가 인간 생존의 전제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근대문명의 인간중심성을 비판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을 추구하는 사조이다.

이와같이 대안교육은 교육이 곧 정규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근대 공교육제도를 대체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교육이념이나 목적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종태 외, 2000: 98-101).

첫째, 자유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이러한 유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동기는 종래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 억압하며 교사(어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에 미국에서 하나의 붐을 이루었으며, 독일에서도 '자유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생태학교형 대안학교이다. 이 유형의 전형은 지난 1982년에 설립된 영국 하트랜드의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 태생의 평화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S. Kumar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마을 안에서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들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셋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서, 미

국의 자유학교가 그 원형이라고 할 만하다. 일본의 '도코슈레'는 비정규 학교로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재적응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학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주로 일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적 결실을 맺고 있다.

넷째, 고유이념추구형 대안학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ule) 또는 슈타이너 학교(Steiner Schule)이다. 이 학교는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한 R. Steiner의 사상을 기반으로 191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6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 전 교육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을 운영하며, 수업방식이나 학습운영방식 등이 매우 특이하다. 우리의 경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상의 대안학교의 특징 및 유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존의 학교를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찾는 청소년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종래의 교육이념이나 학교의 형태를 새로운 평생학습체제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3. 선진국의 중등교육개혁 동향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학교중심의 교육체제를 평생학습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5·31 교육개혁 이래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영국, 독일, 호주의 교육개혁 동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유용한 점들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별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우리의 중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1) 영국

최근 영국의 교육개혁 노력은 특히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로 집약되어 나

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크게 학문경로와 기술경로로 구분되는 복선형적 학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교육기관들의 자율성이 매우 존중되는 풍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선적인 학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각 경로 간 상호 이동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자율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중시한 나머지 그 기관의 책무성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한 폐쇄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폐쇄성은 새로운 도전정신이나 창의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 전반적으로 학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한 영국에서는 교육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평생학습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최근의 교육개혁 방향은 전통적인 복선형 교육체제, 즉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서로 분리된 교육체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1995년 교육부를 교육·고용부로 개편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과 직업훈련의 문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수준 평가업무를 담당하던 SCAA(교육과정평가원: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와 직업기술 자격 기준을 관장하던 NCVQ(국가직업능력자격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가 최근 QCA(국가인증·교육과정원: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진학을 위한 자격기준으로 전통적인 GCE A/AS-level과 함께 일반직업자격(GNVQs: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을 동등한 자격기준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최돈민 외, 1998: 66-67).

이 GCE A레벨은 17세 학생들이 치루는 자격증이며 전체 학생의 23%에게만 주어진다. 대개 학생들은 2과목 내지 3과목에서 A레벨 시험을 치게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5과목까지 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A레벨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제외한 국립대학교 입학에 필수적인 자격증 역할을 한다. A레벨의 보조적인 자격증은 AS레벨(Advanced supplementary)이다. 이것은 A레벨 과목의 약 1/2 정도의 준비를 요구한다.

GNVQ는 16-18세의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보다 광범위한 직업교육 자격증이다. GNVQ에는 3단계가 있으며 ①기초, ②중급, ③고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초는 1년, 중급은 기초 자격증 후 다시 1년의 연수가 필요하며 고급은 중급 이후 2년이 소요된다. GNVQ의 자격증은 미술 및 산업디자인, 기업, 건강 및 사회복지 여가와 관광, 그리고 제조 분야 등에 수여된다.

1998년에 교육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 「학습시대(The Learning Age)」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이희수 외, 2000: 118).

이 보고서에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에는 더 많은 젊은이(16세 이상)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16-17세 청소년에게는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수준2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VQ는 청소년 직업훈련으로 5단계로 나뉘지는데 ①기초, ②초급기술, ③기술자, 고급기술, 감독, ④고급기술자, 임원, ⑤직업인, 중견 임원의 급으로 구분된다(정종화 편, 1997: 93).

2) 독일

독일에서 공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그리고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계속교육의 대부분도 국가 및 기업에서 부담한다. 1970년대 사민당의 집권으로 교육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달성한 독일은 교육기회의 평등이 교육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이 더욱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며,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계속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 계속교육은 학습자의 연령, 삶의 상황, 교육경력을 문제삼지 않으며, 학습자는 흥미, 능력,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한다.

1990년에 앙케이트위원회가 발표한 미래의 교육정책은 가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가치추구 외에도 앙케이트위원회는 미래교육에서 교육에 관한 공적 책임을 줄이고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신 정부는 공교육기관의 '차별받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지원금액도 많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교육에서 소외된 집단을 계속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데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독일정부의 정책방향이다(최돈민 외, 1998: 105-106).

3) 호주

호주에서 평생학습기관의 전형적인 모델이면서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태프(TAFE)이다(이희수 외, 2000: 162-173). 태프라고 불리는 이 교육기관은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TAFE), 즉 '기술 및 계속교육'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호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평생학습기관이다. 태프의 특징은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

으로서의 개방성(openness)과 탄력성(flexibility), 다양성 및 학습자 중심 이념에 의거하여 중등의무교육(10학년: 한국의 고1) 이후의 거의 모든 직업교육과 재교육 및 교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프는 15세 이후의 모든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학력과 관계없이 입학이 개방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과정의 이수 후 상급과정으로 이동하여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다른 태프기관으로의 전·입학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정부는 태프의 재정을 대부분 지원하고 호주 전역에 걸쳐 각 지역 사람들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태프를 각 지역에 산재시켜 놓고 있다. 나아가 출석수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개방훈련 교육네트워크(OTEN)'와 같은 태프 원격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태프 원격교육은 학습자가 방송강의와 교재, 비디오, 위성강의, E-mail 등을 통해 학습을 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평가를 받게 하는 학습방법이다. 575개에 달하는 지역학습기관(Community Centre)들이 호주 전 지역에 산재해 있다.

평생학습의 평가인정체제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구축된 것은 지난 1995년에 호주정부가 연방자격체제(AQF)를 구축하고 난 이후부터이다. 호주자격체제(AQF)는 의무교육 연한인 중등학교 10학년 이후부터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 및 훈련을 12개의 국가자격으로 통일시켜 전국적으로 일원화한 호주의 국가자격시스템이다. 자격은 중등교육부문의 상급중등학교수료증(SSCE), 직업교육훈련 부문 등의 6개 자격, 그리고 대학교육 부문(주로 종합대학)의 5개 자격 등 세 분야에서 12개 자격을 발행하게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그것이 우리의 중등교육에 시사하는 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였건, 평가인정된 자격부여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거쳐 자격만 갖추게 되면 학점 인정과 함께 국가적인 인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과 같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학문중심의 학력과 기술중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고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점이다.

셋째, 호주의 태프(한국의 고1) 원격교육시스템과 같이 각 지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등록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며,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넷째,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교육은 물론 직업교육

을 포함하는 계속교육의 대부분을 국가 및 기업에서 부담하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중등교육은 아직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Ⅲ. 평생학습시대와 중등교육의 발전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특히 중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새로운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중등교육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중등교육의 대안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중등교육개혁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중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몇 가지 발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제도는 시대상황의 복잡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제도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공교육제도의 일원화와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원적 제도화로 나아가야만 한다. 수직적이고도 획일적인 성격의 우리나라의 기본학제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입시위주의 교육을 가져온 비교육적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중등교육은 대학진학을 단순한 중간과정으로 인식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결국 대학진학이 교육의 핵심이자 교육의 본질로 이해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한 이유 중 학교가 맞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높았는데 이는 우리의 획일적인 중등교육체제가 개성이 강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생겨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몇몇 형태의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제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청 수준에서 최소한의 지침 외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특성화고등학교들은 자신의 교육이념이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내용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들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학생들까지도 비교적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또 졸업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이종태 외, 2000: 143). 또한 요즘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 학교나 대안학교들은 일부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있으나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안교육 제도는 다양하다. 그 중 최근에는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제도로 미국의 경우 재택교육인 홈스쿨링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자유학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슈타이너 학교가 그것이다.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세워짐으로써 본격화된 슈타이너 학교는 교과서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런 유형의 학교가 세워져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 내려는 운동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그런 원리에 따라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이런 정책의 범위나 속도는 너무 제한적이다.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의 중등교육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둘째, 학점은행제나 원격교육을 중등교육단계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배우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구태의연한 학교의 교육조직 특성, 획일적인 교육과정, 단조로운 교수방법이 싫은 것이다. 이들에게 자유롭게 나가서, 그 어디서든지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현재 중등교육 중퇴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교육기회에 다시 접근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언제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습하였으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혼란받은 결과를 입증하는 직업능력평가·인증제도의 개발 또는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의 국가직능자격제는 국가수준에서 모든 직업분야의 자격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졸업장에 의존하는 고용정책은 지양되고 능력위주의 고용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능력인증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동시에 일과 학습의 연계가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가 중등교육단계 청

소년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교육의 기회도 중등교육단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새로운 학제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평생학습체제가 이들 중등교육단계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

셋째, 평생학습체제로서의 중등교육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범사회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교육계만의 소관이 아니라, 전국민과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다. 이런 협력체제의 구축 및 분위기 형성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들은 보다 더 일찍이 학습을 생애과정으로 간주한 사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사회계층에서, 모든 삶의 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다.

이제 중등교육의 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 모두를 포함한다. '학교'라는 곳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습기회에 다시 도전하도록 공동체를 형성해주어야 한다. 이런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했거나, 학교 교사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근로장에서 정신적으로 착취를 당한 상처들을 쉽게 잊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인 상처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조처들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들은 학교에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들은 학교교육의 대안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료인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다시 떠돌거나 집에 거주하는 형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료숙식과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양한 예방과 치료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회기관을 탐색하여 그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벌위주의 사회충원을 철폐해야 한다. 응시원서의 학력 기재란을 없애든지,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전단계 학력증명서 요구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했든지 간에 선발대상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학력이 서열화되어 있고 학력중심사회의 작용이 크며, 그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작용하는 외부의 압력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문제해결을 학교

에만 책임지우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문제나 대학 비진학자의 문제는 비록 그것이 학교교육의 체제 안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문제의 동인은 학교 밖인 사회체제와 사회구조에서 형성된 사회 문제인 것이다. 21세기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중등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태중(1999). “평생학습체제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시론적 검토.” 「학습사회구현을 위한 사회교육의 과제」. 한국평생교육학회 '99년 제3차 학술포럼 자료.
- 교육개혁위원회(1995).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보고서.
- _____ (1996).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 제3차 대통령보고서.
- 교육부(1999). 「평생교육백서」.
- 신군자(1997). “21세기 중등교육의 방향.”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7(4). 1-18.
- _____ (1999). “고등교육에 있어서 ‘일’과 ‘학습’의 연계.”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9(3). 135-158.
- _____ (2001). 「새로운 교육사회학」. 서울: 집문당.
- 윤철경 외(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돈희(1998).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서울: 현대문학.
- 이종재(1997). “미래의 초·중등교육 체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2000년대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이종태 외(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외(2000).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방안 연구(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종화 편(1997).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제도」. 서울: 법문사.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9(2). 1-22.
- 최돈민 외(1998).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열린교육체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 2000연구 개발,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 한준상(1995). 「한국교육의 민주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_____ (1999). “교육소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학회. 「소의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11-55.
- Davis, J.(1999). *Youth crisis: Growing up in the high-risk society*. Westport: Prager.
- Drucker, P.(1992). *Managing the future*. New York: Dutton.

Abstract

**Prescriptions for the Reform of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s
in the Lifelong Learning Age**

Kun-Za Sh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he development of the prescriptions for the realignment of the education systems, especially that of the secondary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lifelong learning, which is becoming, in 21st century, one of the major themes in the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education systems.

The study reexamines the existing systems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trends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reformation of the secondary education process in lin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objectives.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following suggestion a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s as an integral part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cess.

First, the education systems should be remodeled so as to meet the versatility of the student needs reflecting the complexity of the society;

Second, the benefit of educational credit bank and distance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youth population;

Third, the overall so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lifelong education oriented reforms of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s;

Fourth, in the employment market, both governmental and private, customary over emphasis of academic credentials should be rectified.